

# 불우 소녀들의 가출과 월경\*

-1930년대 '소녀 공출' 전후사-

김주현\*\*

## 〈차례〉

1.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
2. 직장 소녀의 처녀 되기
3. 보도되는 섹슈얼리티
4. '소녀상'에 담긴 것들
5. 위안부 연행의 문학적 재구성

## 〈국문초록〉

한국 근대 문학사에서 소녀는 소년의 의미론적 짝이되 소년에 가려진 기호이다. 우리의 경우 일본과 달리 '소녀 소설'로 부를 만한 작품도, 소녀 표상의 사회학적 의미를 분석한 연구도 드문데, 이는 소녀=여학생이라는 인식 탓이 크다. 그러나 기실 근대 텍스트를 훑듯 들춰보기만 해도 가출하고 월경하는 술한 '불우 소녀'들을 만날 수 있다. 이 논문은 소녀=여학생이라는 범주를 벗어나 계급적 관점에서 1920년대 이후 근대 조선의 불우 소녀들에 주목해 이들의 행적을 1930년대 후반 '소녀 공출' 전후사로 파악했다.

근대 조선의 불우 소녀들은 카프계 작가의 노동 소설, 신문·잡지 매체 등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된다. 대표적으로 여공이 등장하는 노동 소설의 불우 소녀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가장 노릇을 하다가 정조를 잃고 '혁명 처녀'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 인제대학교 기초대학

로 성장한다. 이러한 성장담은 카프 작가에게서 특징적이지만 작가의 이념이 투사된 이상적인 것으로, 실제로는 병고로 심신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비교적 가감 없는 현실을 보려면 1930년대 신문·잡지 기사의 소녀 유괴 사건을 확인해야 한다. 1920년대부터 3대 민족지는 소녀 유괴 사건을 단골로 실었는데, 때때로 그것은 반중 민족 감정이 결부된 사회적 스캔들이 되어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렇게 재현된 불우 소녀들은, 여학생 출신으로 기생이 되는 사례를 제외하면, 재현 주체에 의해 인권 없는 객체로 사물화됨으로써 오히려 인간으로서 고유성이나 개별성은 지워진다. 이른바 ‘소녀 애화(哀話)’나 ‘기생 애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1930년대의 ‘처녀 공출’은 이러한 소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가 그들의 소녀기를 살해당한 최악의 케이스이다. 반식민주의나 민족주의로 충분히 규명될 수 없는 위안부의 역사적 위치는, 증언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이들이 누구였는가를 되묻는 역사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 논문이 밝힌 근대 불우 소녀들의 행적은 이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다.

핵심어: 근대 불우 소녀, 처녀 공출, 여공 소설, 소녀 유괴 사건, 기생 애화, 소녀의 섹슈얼리티, 위안부 소녀상, 이기영의 『왜가리』

## 1.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

‘소년은 자란다’ 1938년 동아의 정세가 파시즘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김남천은 『소년행』을 썼다. 이 소설의 가장 큰 메시지는 아무리 엄혹한 시대에도 성장하는 어린 세대가 있다는 깨달음일 것이다. 진보에 대한 믿음이 조각난 시기에 변절한 사회주의자와 순수하고 의로운 소년을 대비시켜 그래도 아직 조선에는 ‘소년’이 있다고 외치는 태도에 이미 소년=해의 영광은 소거되어 있지만 그로부터 11년 후에 채만식은 복사판인 듯 유사하게 『소년은 자란다』를 썼다. 두 작품은 부모 없는 세상에 던져져 ‘홀로’

성장해야 하는 고된 의무를 소년에게 지운다. 그럼으로써 무능력한 기성 세대를 관객의 위치로 전환시키는 정치적 무의식을 노출하기도 하지만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소년들에게 부과된 ‘윤리성’일 것이다. 이 윤리성은 일찍이 『해에게서 소년에게』에서부터 민족의 메타포가 된 소년이 내장해야했던 덕목인 바, 그렇게 ‘잘’ 성장한 남성 주체(청년)들은 종종 여성을 이용하거나 그 섹슈얼리티를 전유하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나서게 된다. 이 점에서 ‘소년’은 시작부터 선명한 젠더적 표식을 지닌 채 이상적인 남성 주체의 과거로 재현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근대 초기 여성 섹슈얼리티와 모더니티라는 구도에서 상세히 분석된 바 있다.

소녀는 어떠한가. 소녀는 소년의 의미론적 짝이되 소년에 가려진 기호이다. 논란 대상인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흔히 이십 세 전후 ‘처녀’의 그것으로 제기되다보니 전 단계인 소녀에 대한 연구사적 관심은 상당히 드물다. 우리의 경우 일본과 달리 ‘소녀 소설’이라 부를 만한 작품이 없고 소녀 교육을 따로 논할 만큼 여성 교육의 역사가 두텁지 못해 소녀 표상의 사회학적 의미를 분석한 연구도 미비하다.<sup>1)</sup> 나아가 소녀 개념 자체를 50년대산이라고 볼<sup>2)</sup> 정도로 근대 초기의 소녀 개념은 물론이고 근대와 소

- 1) 일본에서 진행된 소녀 관련 연구로는 와타나베 슈코(渡部周子), 『<少女>像の誕生』, 新泉社, 2007와 이마다 에리카(今田繪里香), 『「少女」の社會史』, 劉草書房, 2007가 대표적이다.
- 2)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한국근대문학연구』 18, 한국근대문학회, 2008.10, 203~207쪽 참조.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소녀가 건국 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여학생층과 관련된 범주 개념이라는 것, 즉 소녀 개념은 “대중으로서 여학생 계층이 폭넓게 확산된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는데, 그것이 가능해진 때가 초등학교 의무교육령이 발효되는 1950년대 이후라는 데 있다.(205~206쪽) 여학생과 소녀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와타나베 슈코와 이마다 에리카의 책에도 나타나며, 192~30년대 여학생이 일종의 특수 계층이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시기 소녀 연구에서 소녀=여학생이라는 시각은 한계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는 여학생이 아닌 채로 존재했던 수많은 소녀들의 위치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식민지의 특수성을 안고 근대 소녀들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는 성인 여성(처녀)로 취급받기 전 상태에 있는 여성이라는 연령 기준에 계급적 관점이 필요하다.

녀상에 대한 초보적 연구도 없다. 그런데 이는 근대 초기 문학(문화) 텍스트에 소녀가 없어서가 아니다. 사실 근대 텍스트를 훑듯 들춰보기만 해도 가출하고 월경하는 술한 소녀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들이 연구 대상으로서는 조명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집을 떠난 근대 조선의 소녀들은 어디로 갔을까. 근대 장편에서 여학생=소녀는 여학생이 처녀가 되면서 성녀 혹은 악녀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소녀기는 처녀가 되는 짧은 준비기로만 재현되고 특별히 문제적인 소녀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는 식민 통치와 피식민지 여성 교육이 충분히 안전한 소녀기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문학 작품에서 습득한 소녀=여학생이라는 통념이 근대 소녀에 대한 연구자의 시각을 제한하고 있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비율을 따지면 신여성이 될 여학생은 소수였고 실제로는 학생이 아닌 소녀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또 20세 이하라고는 해도 여전히 십대 후반에 결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니 통상적으로 18, 19세는 소녀가 아니라 처녀로 인식되었다. 이는 당시의 신문, 잡지나 문학 텍스트를 뒤져보면 확인되는 것으로, 당시 일반적으로 통하던 소녀기의 끝은 17세 정도였다.<sup>3)</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당시 신문 매체에서 소녀로 불리던 8세경부터 처녀로 간주되는 17세 미만 여성을 소녀로 규정하고, 여학생이 될 수 없었던 이들의 계급성에 주목해 이들을 ‘불우 소녀’라 명명한다. 가출 소녀나 유괴된 시골 소녀를 포함하는 불우 소녀는 근대 3대 민족지의 단골 기삿거리기도 했으므로 개념상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

한편 1930년대 후반은 또한 조선의 소녀들이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본

3) 이 글을 쓰기 위해 참고한 신문은 192, 30년대 『조선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매일신보』 등이다. 제목에 ‘소녀’가 등장하는 기사는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대략 정리해보면 192, 30년대 신문에는 15세 이하 소녀에 관한 기록이 압도적이며 간혹 17세 소녀에 관한 기사가 눈에 띈다. 또 드물지 않게 6, 7세 소녀에 관한 기사도 보인다. 하지만 대체로 17세부터는 결혼 적령기 여성으로 보고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 정상적인 혼인이 아니라 첩이나 후실로 들어가 신고를 겪는 어린 신부에 관한 가십성 기사가 많다.

격적으로 강제 동원되던 시기였다. 당시 민간에 널리 퍼졌던 ‘처녀 공출’은 17세 처녀라는 통념에 기대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을 ‘성인’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이들 중에는 17세 미만의 불우 소녀들도 많았다. 뒤에서 밝히겠지만 최악의 경우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을 포함해 이 불우 소녀들은, 소설 속에서 성장하여 성녀든 악녀든 처녀가 되는 여학생이나 불행을 딛고도 성장하는 소년들과 달리 대부분 처녀로 성장하지 못한다. 혹은 반대로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혁명 처녀’가 되었다.<sup>4)</sup> 이들, 평범한 처녀가 될 수 없었던 소녀들에게 혁명 처녀라는 명예를 부여한 이는 카프 작가들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작가의 이념이 투사된 문학 작품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실상을 보려면 불우 소녀를 단골로 취급했던 당대 매체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이 위안부 증언의 역사적 연속성을 논하기 위해 불우 소녀가 등장하는 노동 소설에 이어 2, 30년대 신문, 잡지 기사를 보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식민주의나 민족주의로는 충분히 규명될 수 없는 위안부의 역사적 위치는, 증언의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검토했을 때 새롭게 밝혀질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해 위안부 강제 연행은 일차적으로 식민종주국이 풀어야 할 범죄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선인들이 깊이 얽혀 있는 최악의 조선 소녀 살해 스토리였다. 당대 신문, 잡지 자료는 이 점에서 노동 소설이 놓친 현실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있고, 이는 소녀 유괴 사건을 다룬 당대 소설 작품을 분석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요컨대 이 글에서 다룬 피식민지의 불우 소녀 수난사는 위안부 강제

4) 신문 기사 속 소녀 중에도 부유한 여학생, ‘애국 소녀’처럼 특징적인 표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녀상이 다분히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진데 반해 불우 소녀 기사는 전조선에 있었던, 여학생이 아닌 소녀들의 사연을 비교적 날것 그대로 실고 있었고, 그런 까닭에 3대 민족지의 단골 ‘기삿거리’가 되었다. 이 글은 그 중에서 소녀를 다룬 세 신문의 기사 가운데 연령, 가정 환경, 교육 정도 등에서 공통성이 있고 ‘소녀 애화’나, ‘기생 애화’ 등 사안별로도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사를 다룬다.

연행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텍스트로 우리 앞에 있다. 그러자면 또한 이들이 자신을 위해 몸 바칠 ‘누이’도 없고 종종 가정도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흥미를 보인 매체에 의해 재현되고 표상되는 방식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대신해 말하는 주체들의 문제적 태도를 살피는 것은 내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오랫동안 공론화되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 2. 직장 소녀의 처녀 되기

×                    ×                    ×

여러분! 妙齡期에 있는 어여쁜 여성이 그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또는 그의 몸을 장식하기 위하여서 귀중한 정조를 팔았다하면 우리는 다만 그 한사람을 욕하고 또 꾸짖어야 하겠습니까?(1931년 9월 20일)<sup>5)</sup>

위 글은 1931년 창작된 『여인군상』의 서술자가 작품의 후반부에서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사정은 이렇다. 주인공 영숙은 “가난하나마 순결하게” 자란 19세 처녀다. 그는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병든 부모를 대신해 C백화점의 화장품 “셀스-걸”(女店員)로 일하고 있다. 어느 날 영숙은 동료의 꾀에 빠져 그를 노리는 사내에게 순결을 빼앗기고 그 대가로 평소 갖고 싶었던 구두를 얻는다. 이튿날 새벽에 귀가한 영숙을 보고 사정을 눈치 챈 부모는 영숙을 부둥켜안고 운다. 그대로 끝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단편이다. 그런데 작가는 무슨 까닭인지 스토리를 연장하여 인용문을 붙이고, 또 3년 후 여공이 된 ‘나’(영숙)를 화자로 등장시켜 새로운 세계에 들어설 계기를 제공해준 타락한 동료(C언니)를 ‘은인’이라 칭하는 한편, C언니에게 모든 것을 청산하고 “우리들 푸로레타리아-트를 위해

5) 김을한, 『여인군상』, 안승현 편, 『일제강점기 한국 노동소설 전집 2』, 보고사, 1995, 265쪽. (원문은 『삼천리』, 1931.10)

힘써 싸워주는 동지”가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정조를 잃고 절망한 ‘세일즈 걸’이 신념에 찬 ‘여공’이 된 셈이니 단연 카프의 영향력이 느껴지는 결말이라 하겠다.

카프 문학의 전성기였던 20년대를 거쳐 1930년대에 이르면 여공은 가혹하게 노동을 착취당하는 도시 프롤레타리아의 전형으로 묘사된다.<sup>6)</sup> 영숙의 인생은 고학력 여성이 세일즈 걸을 거쳐 여공이 되고 다시 혁명가가 된다는 이상적인 변신을 의미한다. 2, 30년대 노동 소설에서는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변신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카프 문학에 익숙한 독자나 연구자는 일변 이 변모를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일게 된다. 허나 과연 그랬을까. 카프 소설의 창작 모티프가 되었던 192, 30년대 동맹 파업 중에 여공들의 파업은 45차례 이상이었다. 30년대에 들어서면 남공이 파업에 동참하고 사회운동 단체가 결합하여 파업에 투쟁성이 강화되고 조직화된다.<sup>7)</sup> 하지만 길어야 2년 남짓한 근속 기간, 잦은 이동, 고된 노동 조건을 고려할 때 위 소설에서처럼 평범한 소녀가 혁명가가 되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 사실 ‘혁명 처녀’는 이념의 산물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럼에도 이 특별한 성장담의 프로세스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이것이 2, 30년대 ‘직장 소녀 애화’를 통틀어 거의 유일하게 소녀가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스토리이기 때문이다.

먼저 여공의 처지를 보면 여공은 당시 여성 직업 중에서 교육 정도가 높지 않은 여성들이 택하는 낮은 수준의 직업으로 제사공장의 경우 여공의 연령은 12세에서 20세 사이, 주로 15~18세가 다수였다<sup>8)</sup>고 한다. 실

6) 서지영, 『여공의 눈으로 본 식민지 도시 풍경』, 『역사문제연구』 22, 역사문제연구소, 2009.10, 14쪽.

7) 윤정란, 『식민지시대 제사공장 여공들의 근대적인 자아의식 성장과 노동쟁의의 변화과정』, 『담론201』 9권 2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8 참고.

8) 위의 논문, 42쪽. 송계월이 쓴 「공장 소식」(1931)에도 제사 공장에 다니는 여공들의 최소 나이가 13세, 다음으로 보통학교를 졸업했거나 결혼에 실패한 부인들이 많다는 정보가 나온다. 또 부인들의 경우 중등 이상 계급 출신이라는 내용(274쪽)도 있다. 송계월, 「공장소식」, 안승현 편, 앞의 책 2권 참고. (원문은 『신여성』, 1931.12)

제로 30년대 말에도 도회를 동경한 소녀들이 상경하여 방직 공장에 들어갔다가 도망치곤<sup>9)</sup> 했으니 직업여성<sup>9)</sup>에 대한 정보에 밝지 않았던 시골 소녀들일수록 여공을 더 선망했으리라고 추측된다. 소학교를 졸업하고 일정한 소양을 갖춘 엄전한 시골 소녀들은 특별히 ‘뽀뽀’와 도시에서 여공 생활을 하였고 이를 기회로 대도시에서 근대성과 조우하게 된다. 카프 문학에 보이는 혁명 처녀는 대개 이러한 소녀가 주인공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여인군상』에서도 보이듯이 소녀는 혁명가로 성장하기 전에 정조를 잃는 일종의 의사 죽음을 겪는다. 근대 소설에서 정조를 잃은 여성이 자결하는 플롯은 흔하지만 카프 소설에조차 이러한 설정이 빈번한 것은 당시 지식인들의 ‘정조 무용론’이 통념을 상회하는 이상론이지 않았나 되문게 된다. 양자의 차이라면 카프 소설에서는 처녀성을 잃고 몸부림치는 과정이 비교적 간결하게 처리되어 있는 점일 텐데, 그럼에도 처녀성 상실은 소녀의 계급적 각성에 필수적이고, 이는 다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자각과 다른 남성 주체에 의한 정조 무용론으로 나누어진다. 신여성이라면 신기할 것도 없는 발언이 이 소설에서처럼 하층 계급 소녀의 것으로 나타날 때 소녀는 이채로운 존재가 된다. 우리 문학사에 뚜렷이 각인되어 있는 이 소녀들은 누구였을까. 답을 찾기 위해 번거롭지만 카프 소설 몇 편을 뒤져보기로 하자.

이기영은 『민며느리(금순의 소전)』에서 장차 혁명 처녀가 되는 소녀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각하는 과정을 잔존했던 민며느리 제도의 폐해로부터 구성한다. 주인공 금순은 13세에 처음 아버지뻘 사내를 남편으로 맞고, 19세에 비로소 첫사랑을 하게 된다. 상대는 이웃의 동갑내기 인텔리 ‘복남이 아저씨’이다. 이로 인해 금순은 자신의 처지가 무언가 부자연스럽다는데 눈을 뜬다. 금순은 곧 집을 떠나는 그를 위해 정성껏 만든 복주머니를 징표로 건네나 복남은 그런 금순을 경멸한다. 여기서 무언가를 깨달은 금순은 마침내 자신의 부자연스러운 혼인을 해소하기로 결심한다.

9) 『조타고찾아갔든공장 虐待에 二少女脫出』, 『동아일보』, 1939.8.4, 7면.



그 때 그 꼴을 본 사내는 작대기로 또 죽어라 하고 금순이를 두드렸다. 그것은 금순이가 인제부터 자기와는 살지 않겠다고 선언한 까닭이었다. 사내는 두드리다가는 양살하는 주둥이를 지졌고, 지졌다가는 또 두드리었다. 금순의 코와 입으로는 선지피가 철철 흘렸다. (...) 황선달 집이 떠나자 금순이는 다시 시부모한테 몰매를 맞게 되었다. 그들은 금순이를 빨개 벗겨 놓고는 시어미는 시빨건 인두로 단근질을 하고 시아버비는 송곳으로 정갱이를 쭈시며 문초를 받았다. (...) 나중에 사내가 마지막 단판으로,

“너고 나고 살기 싫거든 허벅다리를 맞제자!”

하고 낫을 들고 대들었다. 그 때 금순이는 거침없이 허벅다리를 쭈 내밀었다. 들었던 낫을 콧 찍었다. 그래도 그는 이만 아득아득 갈고 앉았었다.<sup>10)</sup>

이 엽기적인 장면은 금순이 소녀기의 끝에서 치른 입사식이다.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대가로 금순은 민며느리에서 벗어난다. 그 후 서울로 간 금순은 “무산계급 전선의 투사”인 여공으로서 더 이상 복남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에 충실하고자 한다. 이렇듯 고통을 겪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선택한 금순이 있지만, 기실 더 혼란 케이스는 불시에 처녀성을 잃고 다른 남성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정조 무용론에 동의하게 되는 케이스이다.

용희는 소꿉친구로 자란 약혼자가 모종의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자 17세에 강제 결혼을 피해 달아났다가 곡절 끝에 동경의 모스린 공장에 팔린다. 하지만 용희는 기적처럼 그곳에서 약혼자와 재회한다. 다시 만난 약혼자는 정조를 잃은 용희의 처지에 책임을 느끼고 빚을 갚아주려 애쓰지만 뜻대로 잘되지 않는다. 그러나 용희는 이미 돈을 구하지 못해 좌절하는 약혼자를 격려할 만큼 야무진 여공이 되어 있다.

저는 돈 백 원에 전당이 잡힌 인조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써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 번 가려고 하였으나 이곳에서는 절대로 출입을 금하였으며 더

10) 이기영, 『민며느리(금순의 소전)』, 안승현 편, 앞의 책 1권, 206쪽. (원문은 『조선지광』, 1927.6)

군다나 저를 찾아오는 사람까지 의심을 해서 면회를 거절하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메이테이는 가까워서 옵니다. 이 곳 우리들의 모스린 여자직공조합에서도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나 만나뵙지요. 침을 뺄 수도 없이 정하게 쓸어놓은 일비곡 공원으로 우리들의 행렬이 지나갈 때에는 다만 ‘동경여자직공조합대도정부’라는 기만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그 기 아래에는 제가 있을 것입니다. -용희-11)

굳이 따지자면 이러한 ‘동지적 사랑’은 카프 소설에서 여공의 섹슈얼리티가 가장 바람직하게 개화한 사례이다. 이 작품들에서 소녀는 대체로 20세 이전, 17~19세에 입사식을 겪고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 그 대표적 존재가 1927년 발표된 『낙동강』의 혁명 처녀 ‘로자’이겠거니와 애인의 유지를 받들어 떠나는 로자의 태도는 일말의 주저도 없다. 그런데 이러한 스토리가 30년대에도 계속된다. 박화성의 『하수도 공사』(1932)에 등장하는 18, 17세 처녀들은 미성년이지만 서술자는 이들을 ‘처녀’로 명명하고 있다. 이들은 오빠이자 연인인 동권의 지도를 받고 또 동권에게 유일한 ‘위안’을 주는 관계이다. 여기서 동권이 투쟁하기 위해 떠나면서 강제 결혼을 할 처지에 놓인 용희에게 남기는 유훈도 『낙동강』의 성운이 남긴 말과 다르지 않다. 그는 용희에게 “굳이 만일 나의 뜻을 알고 나를 사랑할진대 그대 스스로 모든 환경을 돌파하고 자체를 편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勇氣)를 가진” “굿센 벗”이 되라고 주문한다.<sup>12)</sup>

11) 송영, 『우리들의 사랑』, 안승현 편, 앞의 책 1권, 337쪽. (원문은 『조선지광』, 1929.1)

12) 혁명가로서 소녀는 박영준의 『소녀공』(1932)에도 나타난다.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사랑이 전부인 줄 아는 신경은 16세에 그렇게 싫어하던 영등포의 방직 공장에 들어가게 된다. 직접적인 계기는 부친이 소작지를 떼인 탓에 부득이 고향을 떠나 소녀가장이 되었기 때문이지만 보통학교 담임이자 신경이 사랑하는 ‘선생님’인 태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태호는 신경이가 공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참으로 굳센 사람이 될 수 있는 것”(357)을 알고 신경을 격려한다. 그리하여 신경은 다른 여공을 교화시키는 존재로 혹독한 공장 생활을 견디며 태호의 구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그의 전부가 아닌” 투사가 된다. 박영준, 『소녀공』, 위의 책, 2권 참고. (원문은 『전선』, 1932.5)

이상의 작품들에서 소녀 여공의 의식 변화 과정에 일정한 패턴이 있고, 그것은 처녀성 상실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한두 편을 제외하고 이 작품들은 플롯의 전개나 소설적 개연성이 떨어지며, 그런 까닭에 줄곧 지적돼온 카프 소설의 결점이 그대로 노출된다. 그럼에도 어떻든 이 소녀들이 바람직한 상(像)대로 ‘성장’한다는 서사는 중요한데, 현실에서는 여공을 포함하여 직장 소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더욱 그렇다. 사실 이들을 보는 시선은 직업인이라고 보다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기 일쑤였다.

예컨대 1930년대 말에 한 잡지는 “직장 소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그들의 애환을 전하는 좌담을 개최한다. “종달새같이 재질거리고 바람개비처럼 나폴거리면서 하늘끝까지 날르고 싶은 공상을 품고있는 나어린 소녀—”들이 “아름다운 공상을 버리고 ‘생활에명애’를 질머지고 나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여운일이요 다시 생각하면 자랑하고 뽐낼일이다.”고 쓴 기사의 서두는 ‘생활’과 ‘소녀기의 들뜬 감정’ 상태가 융화되기 어려운 대조적인 성질임을 드러내고 있다. 허나 필시 모범적인 직장 소녀들을 선별했을 터이므로 전체적으로 ‘생활’의 비중을 약화시키고 직장 생활을 미화하고 있는데도, 소녀들의 “조그마한 어여쁜 불평”을 알려주고 그들을 치료할 “소화제”역할을 할 목적으로 기획했다<sup>13)</sup>는 필자의 기사 작성 동기는 완곡하게 소녀들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자아실현이 아닌 ‘가장 노릇’이라고 밝히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소녀들이 이구동성으로 열악한 노동환경보다 성희롱을 일삼는 남성 고객들 때문에 괴롭다는 고백은 처녀기를 목전에 둔 소녀들이 느끼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위협의 표현일 것이다. 즉 직장 소녀들은 ‘고된 몸’과 ‘깨끗한 몸’ 사이에서 갈등해야 했는데, 더 허탈한 것은 이들이 요행 깨끗하게 몸을 간수했다라도 어느 순간 질병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된다는 데 있었다. 여공도 그렇지만 특히 단자

13) 『職場 少女들의 抗議書』, 『여성』 3권 7호,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7, 82쪽.

버스걸(차장), 백화점 점원, 엘리베이터걸, 다방걸(다방소녀), 깨소링걸(주유 판매원), 여직공, 극장티겐걸이 좌담에 참석했다. 이들 중 절반이 성희롱을 호소하고 있다.

화되어 있던 직장 소녀들에게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병’을 얻는 이유가 되었다. 어쨌든 교류 가능한 단체 생활을 하는 여공과 달리 ‘쌔스걸’이나 ‘티켓걸’들은 도시에 흩어져 감정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상대적으로 (병든) 육체가 (약한)정신을 감염시키는 정도가 더 심했다.

안희남의 『병든 소녀』는 이를 적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16세 소녀 차장 월희는 버스에서 성희롱에 시달리던 중 비를 맞고 쇠약해진다. 그런데 일도 일이지만 병중에 듣는 버스 차장에 대한 경멸적 시선이 고통스럽다.

월희는 누워서 이것(동네 아이들이 버스 차장을 흉내내는 노래-인용자)을 들으려면 마음이 끝없이 슬퍼지고 아무리 철없는 소녀일지나 집안 살림의 근심이 가득한 데다가 한 분 어머니를 두고 이대로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나서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그러나 또 어떤 때에는 깊은 밤 술취한 부랑자들이 지나가면 창가들을 하는데

…… 오전만 가지면은요  
‘쌔스걸’ 손목을 만지는구나  
어허 요것이 사랑이든나 ……

이런 소리를 들으며 병이 쾌차해서 귀찮은 세상에 나가고도 싶지 않았다. 그대로 캄캄한 밤의 세상이 우루루 무너져 가지고 자기를 파묻어주고 깊이 깊이 땅 속으로 묻히고 싶었다.

새싹이 푸르른 나뭇잎과 풀들은 오월의 태양과 솔솔 바람에 앞으로의 번성을 약속하고 하루하루 자라가는데 병들어 누운 월희의 얼굴은 어여쁜 두 눈을 남기고 더욱 더 야위어갔다.<sup>14)</sup>

즉 정도 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 소녀들에게 성희롱은 소녀기의 끝에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불쾌한 경험이었다. 여공이든 기타 직장소녀든

14) 안희남, 『병든 소녀』, 안승현 편, 앞의 책 3권, 74쪽. (원문은 『신동아』, 1933.6)

일하는 소녀들은 원만하게 처녀가 되기는 어려웠다.<sup>15)</sup> 성희롱 혹은 극단적으로 성폭력을 대가로 치르고서야 끝나는 소녀기는 처참하기 그지없지만 그래도 이 소녀들은 최소한 보통학교를 나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희롱하는 자들을 지목하고 그것에 분노하는 자존감과 자기애를 가진 점에서 최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학교의 바깥,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훨씬 나빴기 때문이다. 192, 30년대 소녀 관련 신문, 잡지 자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3. 보도되는 섹슈얼리티

소녀기를 규정하는 단어가 ‘생활’보다 ‘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녀기가 학교, 가정 등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기관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여학생이 일본에서보다 더 특권층이었던 조선에서는 학교에 다니는 ‘특별한’ 소녀보다 학교 바깥에서 거리를 헤매는 가출 소녀들이 두드러진다. 사실 이들은 192, 30년대 신문의 사건·사고란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당시 지식인들이 직장 소녀로부터 찾아낸 여학생스러운 요소들이란 그의 머릿속에 형성된, 근대 일본의 소녀상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이미지의 편린들이기도 해서 문인들 또한 어린 직장 소녀로부터 미지의 매력적인 여성을 찾기도<sup>16)</sup> 하나 신문지상을 장식한

15) 채만식의 『병이 낫거든』(1941)에서 업순이 제사공장에 들어간 때도 17세이다. “마음도 신체도, 온전하고 흠결없는” 시골 소녀 업순은 1년 만에 도시 공장에서 폐결핵을 얻고 귀향한다. 병명을 정확히 모르는 탓에 업순의 부모는 병이 나오면 업순을 혼인시키겠다 결심한다. 그러나 병이 나올 리 없는 업순에게 더 이상의 미래가 있을 리 없다. 채만식, 『병이 낫거든』, 『채만식 전집 8』, 창작과비평사, 1989 참고.

16) 이헌구, 『소녀 차장』, 『사해공론』 2권 5호, 사해공론사, 1936.5.

이헌구는 우연히 전차에서 소녀 차장을 만난 인상기를 적고 있는데, 15세 내외의 소녀에게 그가 느끼는 첫인상은 ‘방울같은 목소리와 튼튼같은 청초한 미’이다. 또 그가 소녀를 애뜻하게 느끼는 까닭은 소녀가 아직은 일보다 “자유롭고 행복스러운 꿈”(120쪽)을 펼칠 나이이기 때문이다.

사건·사고의 주인공 소녀는 모더니티의 악마성에 포획된 어린양의 이미지로 더 많이 재현되었다. 어느 시의 표현을 빌면 근대 조선은 근대성이라는 “미로에 든 소녀”<sup>17)</sup>들이 도시의 곳곳에서 팔려가는 곳이었다.

당시 3대 민족지가 주목한 소녀들은 하층 계급에 속하는 이런 불우 소녀들이었다. 그런데 이 소녀들은 전혀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존중받지 못한다. 당시 소녀 관련 기사에서 압도적인 소녀 유괴 사건을 보자. 10세부터 16세 미만 소녀들은 사실상 주체적 선택이 어려운 비여학생이며, 앞에서 본 직장 소녀들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따라서 불우 소녀 유괴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만도 했지만 아동 실종, 유괴 사건이 흔하다 보니 그 자체로는 대중의 관심을 받기 어려웠다. 이러한 사건이 사회적 스캔들이 되려면 언론사에서 특종이나 특집으로 사건을 조명하고도 반중 감정 같이 민족의식을 자극하는 매개가 필요했다. 그런 까닭에 중국인들이 조선 소녀를 유괴한 사건이 당시 민족지의 단골 기삿거리였다.

과정은 대개 이렇다. ‘악(惡)중국인’으로 통칭된 중국인이 홀로, 혹은 조선인과 공모해 어린 시골 소녀를 유괴한다. 그 사실이 신문 기자나 순사에게 발각된다. 해당 중국인은 관할서에서 체포하여 현재 취조중이다. 대개의 기사는 이렇게 끝나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이런 기사에는 악중국인과 함께 거간꾼 조선인이 나란히 등장한다. 여기서 이 기사들의 과장과 효과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소녀 유괴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룬 신문은 단연 『동아일보』였지만 1923년 창간된 『시대일보』도 창간호부터 이 문제에 민감했다. 1924년 6월 17일, 『시대일보』는 조선인이 결탁해 소녀를 중국인에게 팔아넘긴 사건(「朝鮮人이結託하여 少女를誘因賣渡」)을 크게 보

17)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날이저물어, 迷路에든少女가/검은하느니·르과, 複雜한都市와/그밧게 그밧게/일흠모르는 故郷을바라며/限없시, 限없이/먼곳, 갓가운곳을/헤코·이며 찾는다./날이저물어 迷路에든少女가/검은머리털과 흰수족에,/가—는비를마즈며/너—거운눈물이 흐를너마다/시늘한비람이 부디칠너마다/너너리고 우는, 可憐한身勢를/無窮한 하느니·르시너하소연 하여라./날이저물어 迷路에든少女가/힘업는 玉手로/못잡고져. 虛空을!

落照生, 「소녀」, 『홍영』 1권 2호, 공영잡지사, 1922.8, 102~103쪽.

도했다. 주목할 것은 매매된 소녀의 나이가 7, 8, 9세로 매우 어리다는 것과, 해당 중국인과 소녀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조선인만 체포하여 사건의 전후를 추론하는 기사 작성 태도이다. 필자는 소녀를 산 이유를 중국 사람들이 이들을 약의 원료로 쓰거나 키워서 성매매를 시키려 했다고 단언한다. 즉 정작 범인과 소녀는 찾지도 못한 상태에서 현지에 떠도는 소문만으로 “육신환의원료로쓰거나갈보로양성하라는모양”이라는 부제를 달고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이렇듯 야만적인 중국인들에 희생된 ‘에로그로년센스’와 같은 불쌍한 조선 소녀 괴담은 당시 신문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사실 식민지 시기 내내 조선과 중국의 민족 감정은 부침을 계속했다. 사소한 사건으로도 빈번히 반중 감정이 일어났고 때로는 ‘만보산사건’처럼 일제에 의해 민족 감정이 교묘하게 이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기사 역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조선인과 중국인이 공모하여 조선 소녀를 유괴하는 사건이 인천, 경성 등은 물론이고 신의주, 평양, 심지어 논산 같은 지방에서도 발생하고 있었<sup>18)</sup>음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어린 동포를 팔아먹는 거간꾼 조선인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가정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10세 안팎의 소녀들이 타국에 팔리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이 기사는 식민 당국이 내린 중국인의 인육 습관 운운을 그대로 받아쓰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녀 유괴 사건을 중국인을 폄하는 민족적 흥밋거리로 만들어버린다. 물론 이성적인 독자라면 인육 운운은 가쉽성 추측이며 매매 이유는 후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스캔들에서 공범자 조선인의 역할이 절대적이므로 일차적인 비난은 ‘악중국인’이 아니라 어린 소녀마저 팔아먹는 ‘악동포’에게로 가야 옳다. 이 악동포들은 조선 팔도 어디에나 있었고 처녀보다 소녀를 사서 ‘창

18) 중국인 유괴범에 대한 소문과 공포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1933년 한 기사는 강경, 논산에서 아침밥을 먹고 놀러나갔다가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가 수색원을 제출했는데 그것이 어떤 중국인의 소위가 아닌가 추측한다. 『江環論山두곳에서 兩少女行方不明』, 『조선중앙일보』, 1933.7.26, 4면.

기'로 키운다는 계산을 할 줄 알았다. 17세 소녀를 사는 반값인 '좁쌀 세 포대'에 10세 미만의 소녀들을 사고파는<sup>19)</sup> 일이 조선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이들은 중국인에게 소녀를 공급하는 공급책이었다. 또 현실적으로도 조선인을 체포, 심문하기는 수월했지만 행방을 감춘 중국인은 추적도 쉽지 않으려니와 검거해도 강제 추방이 최상이었는데, 추방된 중국인들이 쉽게 재범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러한 조선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소녀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내적 요인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점을 감안해도 당시 신문이 이런 류의 사건을 보도하는 방식은 예상을 초월한다. 단적으로 행방이 묘연한 중국인이나 조선인 공범을 버려두고 유괴된 소녀들을 지상(紙上)에 전시하는 보도 방식이 가장 흔했다. 소녀 유괴 사건이 한참 시끄럽던 1935년, 가해자 대신 피해자 사진을 커다랗게 박아 특종을 터뜨린 한 사건은 하층 계급 조선 소녀의 섹슈얼리티가 식민 당국과 민족 감정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전유되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보통 단신으로 처리되는 것과 달리 당시 한 신문사는 사건을 특집 기사처럼 자세히 보도하여 여론을 일으키는 데 성공한다. 그 후 3개월이 지나 사건이 거의 수습된 1936년 1월, 필자는 다시 『조광』지에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있다. 사건은 기자가 늘 취재차 드나들던 H경찰서에서 모르핀 중독 혐의로 잡혀 온 부녀가 취조 받는 현장을 보고 비상한 '예감'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그는 일인 순사로부터 모르핀에 중독된 소녀 외에도 유괴범 중국인의 집에 두 소녀가 있는

19) 「좁쌀 단 세 포대에 팔리어 온 소녀」, 『동아일보』, 1928.2.5.면.

함남 원산부 지나령 18번 함세인이 강원도 철원의 다방에서 8, 12세 소녀를 황숙 3포대를 주고 사서 집에 가둬서 양육하던 중 발각되어 취조 중인데, 키워서 매춘부로 팔아먹으려 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당시 매매된 소녀의 나이는 7세부터 시작하고 있고 많아야 15세이다.

이 기사는 극단적이지만 매수금 역시 보통 어릴수록 썼다. 20년대 초반에는 중국인이 중국에서 데려온 여자에게 매음을 시켜 번 돈으로 30, 40, 80원에 12, 13, 15세 조선 소녀를 사기도 했다. 관련 기사 「少女賣買 中國人逮捕」, 『동아일보』, 1924.10.04.2면.



데 이들이 조선 소녀라는 정보를 듣는다. 기자 스스로 밝혔듯이 이는 “일단이나 이단 정도”로 처리될, “흔히있는 악마같은 중국인 아편굴에 유인 감금되어있는 불쌍한조선 소녀들”에 대한 스크랩에 불과한 사건이었는데 뜻밖에 그가 세 소녀를 구해 “광명한 천지”를 보게 하겠다고 결심하면서 사건은 전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 흔한 사건이 조선 사회와 식민 당국이 함께 해결해야하는 ‘사회 문제’로 이슈가 된 것이다. 그는 경찰서를 나와 탐정처럼 태평동 골목을 탐문하여 갇힌 소녀들을 찾아냈고 해당 신문에 특종 기사를 잇달아 내보낸다. 결국 그의 활약으로 여론이 일어나 중국인 부부는 처벌되고 소녀들은 경성의 아동 보호 시설에 입양된다.<sup>20)</sup>

이 사건은 괴담으로 출발했으나 민족 감정과 식민 당국의 사건 해결 의지가 맞아 떨어져 미담으로 마무리된 대단히 예외적인 사건이다. 『조광』지 후일담에서 필자는 사건 당시 “인육시장”에 팔려가고 말 ‘조선 소녀들’을 보며 이들을 ‘자신의 딸’로 느끼고, 이가 갈리는 “강렬한 복수심”을 느꼈다고 하니, 불쌍한 동포 소녀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민족적 수치심과 지식인으로서 윤리의식이 결합된 공분이라 하겠다. 허나 동시에 일인 순사가 사건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으로써 이 사건은 식민 당국에 유사 사건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가 되었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언론사의 특종일 뿐 아니라 식민 당국과 조선 사회 양쪽에 윤리적 책임을 묻는 경성 인신매매 스캔들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속에 소녀의 인권은 없다. 『조광』에 기고된 바로는 이튿날 경쟁지에서 문제의 세 소녀가 조선 소녀이기는 하나 강제매춘은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를 냈는데, 필자는 이에 분노하여 후일담에서 당시 정황을 상세히 공개했다.

20) 이 사건은 『조선일보』에 1935년 10월 30일에 최초 보도되었다. 『朝鮮少女들을誘引 強制로賣春虐待』, 『조선일보』, 1935.10.30, 2면 참조.

나는이것을보고 꺾으나 우셨습니다. 안이 몹시분개했습니다. 교자라는소  
 녀가 강제매음을당한 것은 취조당시에 계원이 그 진가를판별하기 위하여  
 xx를들추어본즉 지독한화류병에 걸려있다는 사실로 미루어확실히 판명된  
 것이요 또설사백거름을 사양해서 그런사실이 없다할지라도 그도 조선소녀  
 라는 사실만은 잘인정하면서 구지지엽문제를 들추어내가지고 남의쓴기사를  
 중상할필요가 어데있겠습니까? M기자의쓴기사를가지고 본다면 맞치 중국  
 로파를 두둔해서 매춘을 강제로시킨 일은없고 설사그런일이있다면 소녀제  
 가 질겨서한것이란미로 볼수밖에 없으니 그것이무슨 신문도(新聞道)를  
 몰각한지나친실수입니까!<sup>21)</sup>

인용문에 쓴 지엽적인 문제는 소녀의 성매매 여부이다. 사실 이는 매우  
 중요한 점인데, 인용문에도 보이듯 특종 싸움이 일어나자 필자는 소녀의  
 출신지를 우위에 두고 강제 성매매 여부에 대해서는 한 발 물리서는 태  
 도를 보인다. 그런데 성매매 여부를 떠나 소녀를 대하는 공권력과 기자의  
 태도가 충격적이다. 인용문에 따르면 당일 경찰서에서는 화류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15세 소녀의 성기를 검사한 것이다. 소녀의 인권은 안중에  
 도 없는 이 상식 이하 행동을 차지하더라도 이를 버젓이 강제 매매의 증  
 거로 억울하다는 듯 기록하고 있는 기자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  
 에 이르면 논란 대상인 소녀의 섹슈얼리티는 이미 논외이다. 개인으로서  
 는 물론이요, 민족/제국이 지켜주지 못한 불쌍한 조선 소녀라는 추상적  
 범주에서도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한 채 경찰서와 지면에서 거듭 모욕  
 당하는 이 소녀는 기사의 앞부분에 나온 대로 어디서나 일어나는 흔한  
 사고에 등장하는 객체로 온전히 사물화되어 있다. 기자의 주장대로 강제  
 매음을 했건, 매음을 하지 않았건 기사 전체에 ‘소녀의 목소리’는 아예 없  
 다는 사실, 그리하여 일방적으로 소녀를 전시/보도하고 있는 기사는 그가  
 이 사건을 무엇보다 “내가 원작과 각색에 무대 감독까지를 겸해갖이고

21) 『中國阿片窟에 監禁된 朝鮮少女救出記』, 『조광』 2권 1호, 조선일보사출판부, 1936.1, 391쪽.

연출시킨 인정극 한막”으로 정의한 진의를 확인시켜준다. 여기에 이르면 그의 관심은 소녀(들)의 불행이 아니라 자신이 연출하고 소속 언론사와 경찰서가 제작/후원을 맡은 불쌍한 조선 소녀 구출담의 성공(홍행)여부가 된다. 그 과정이 신문을 통해 실시간 중계로 이루어진 덕에 불쌍한 조선 소녀 구하기는 반중 감정을 업고 민족적 수치에 관련한 사안이 된 것이다. 동시에 그것이 식민지 당국의 사건 처리 능력에 대한 교묘한 시험이 되자<sup>22)</sup> 물심양면 지원을 받으며 공연은 성공하게 된다. 이후 사건은 “거리의명랑한 이야기거리”가 되었고 서양 사람까지 포함해 12명이 소녀들의 양부모가 되겠다고 나선다. 미담은 기사를 보고 9세 소녀를 몇 년 전에 잃은 아이라고 지목한 부인이 나타남으로써 정점을 찍는다. 이 감동적인 상봉은 기자와 경찰관들이 입회한 가운데 경찰서에서 이루어졌으나 불행히도 소녀가 한사코 거부하는 바람에 친자확인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녀들은 사회기관에 위탁된다.

이미 언급했듯 이 사건이 미담이 된 것은 해당 언론사의 미담 흥행 기획에 대중과 식민 당국이 적극 호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인 소녀의 목소리가 신기할 정도로 지워져 있다는 점, 충분히 인터뷰가 가능한 15세 소녀를 시종일관 사물화하는 관계자들의 태도는 납득되지 않는다. 17세=처녀였던 통념에 비추어도 그렇다. 왜 이들은 이토록 모진 방식으로 국가 기구와 연합하여 15세 소녀의 섹슈얼리티를 폭력적으로 전시/보도하고 있을까. 물론 소녀들은 중국인이라고 자처해 민족적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친어미의 손길을 거부함으로써 극적으로 다가온 재생의 길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어렵게 ‘민족의 품’으로 돌아온 소녀들의 육성이 끝까지 누락돼 있는 것은 결국 이들이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서발탄이기

22) 이에 대해서는 기사 중에 일인 순사 T주임의 말로 확인할 수 있다. ““W씨 당신네 신문에서 넘어도 그소녀들을동정해 떠드러놓아서 앓으려야앓을수없이 중국사람손에서 빼여내서 고아원같은데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지금 경성부청(京城府廳)으로 넘겨주려고교섭중이오 신문의떠드는힘이란 이렇구료?” 하고 자기가 인도상(人道上)그만치 좋은일을한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했습니다.” 위의 글, 392쪽.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이들을 대신해 말할 수 있었던 기자 역시 이들을 객체로만 사고했기에 15세 소녀가 당한 모욕에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 비슷한 시기에 동년배 소녀가 주인공인 또 하나의 스캔들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확연히 엿볼 수 있다.

1921년 10월 『동아일보』는 7회에 걸쳐 실화 「소녀애화」를 연재<sup>23)</sup>했다. 주인공 박형순(16세, 여고보생)은 지금 무지한 부모 때문에 기생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기사는 박형순의 사진을 싣고 전말을 소개한 후, 본인, 가족을 인터뷰하고 기자의 촌평으로 마무리된다. 현재로 치면 심층 취재 형식인 셈이다. ‘기생 애화’는 근대 매체의 단골 기삿거리였고 계몽담론에서는 기생=사회악이었기 했던 터라 여학생 출신 기생 애화도 자주 등장한다. 이 기사도 그 범주에 속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기사는 공통적으로 집안 형편상 혹은 부모의 강권에 떠밀려 부득이 기생 노릇을 한다는 상황 논리가 우세하다. 이 기사도 “자녀를 팔아 제 배를 기름지게 하는 악마같은 부모”를 고발하여 “소녀의 애담은 역사를 뜻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호소”해보겠다는, 곧 여론을 일으켜보겠다는 목적을 비치고 있는데, 이는 박형순이 스캔들이 될 만한 요소를 고루 갖추었기 때문이다. 기생으로 이름 높은 평양 출신에, 학비를 대준 고모와 언니가 기생이라는 점, 기생을 강권하는 완고한 아버지와 무지한 인척 등 소녀는 봉건 제도에 묶여 있다. 그런데 불행한 소녀가 흔하다보니 이 정도로는 세인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하다. 박형순이 선택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이 7회에 걸쳐 현장 취재를 하고 기사를 내보낸 까닭인데, 이 소녀가 「무정」의 영채가 그랬듯이 현재 순정하고 총명한 여학생이라는 데 있었다. 실제로 기사에는 형순이 “사람다운 곳이 없고 오직 구복을 위해 사는 하등배” 집안에서 피어난 한 떨기 꽃이며 우등생인 것, “자라면서 학교에서 배운 바와 다른 난잡한 가정을 부끄러워”하면서 “원한”을 품은 점이 반복해서 언급된다. 대조적으로 고모와 부친은 “간악”하고 “짐승같은”자들이다. 기자는 형순을 인터

23) 「少女哀話 1~7」, 『동아일보』, 1921.10.2~1921.10.8.

류한 후 “아! 죄업시도수장에 끌려드러가는 어린양이여!”하고 감정을 이입하여 장차 화류계에 빠질 “눈물의 주인공”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증폭시킨다. 이에 대해 형순의 부친이 “애가 공부를 너무 해서 뇌가 상했다”고 하는 말은 차라리 한 편의 희극이다.

위에서 본 바 같이 ‘소녀 애화’ 중에는 부모가 자신을 팔았으나 기생 노릇을 거부하는 소녀<sup>24)</sup>들의 사연이 많았다. 이런 기사의 주인공들은 기생 노릇을 ‘한사코’ 거부함으로써 가극하고 불쌍한 소녀로 동정 받고 부모들은 악하고 무지한 자가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시 『매일신보』가 중심이 되어 기생을 위생학의 주 단속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로써 식민지 조선을 시각적으로 타자화했다는 것, 동시에 1920년대 이후 남성 지식인들과 신여성들 또한 사회적 약자인 기생을 타자화하고 기생 제도를 전근대적 유산으로 상정<sup>25)</sup>해 나갔다는 지적은 참고할 여지가 있다. 이 기사도 그렇거니와 유사 기사들도 배운 소녀가 기생이 되는 것이 더 해롭고 이들이야말로 풍기를 문란시킬 범죄자가 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형순은 기자와 인터뷰를 했고, 불행한 처지를 호소하여 ‘비련의 주인공’으로 확실한 존재감이 돋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교자와 같은 소녀들-납치당해 이국에 팔리고, 다행히 풀려나도 구경거리로 전시되다 끝내 종적을 알 수 없었던 근대 조선의 술한 불우 소녀들에게는 비할 바는 아닌 것이다. 사회기관에 위탁된 교자만큼 운이 좋지 못했던 소녀들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조선 전역에서 납치되어 소녀기를 살해당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된다. 이들은 오늘날 위안부 할머니로 알려진 소녀들이다.

24) 비슷한 애화로 『단발량 이야기 1~5』, 『매일신보』, 1924.2.2~1924.2.6; 『창기 되기 싫다고 경찰서에 호소』, 『중외일보』, 1930.1.29 참고.

25) 이경민,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진아카이브연구소, 2005, 73쪽.

#### 4. ‘소녀상’에 담긴 것들

위안부의 존재는 1992년 김학순이 피해 사실을 증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1941년 당시 중국 동북부로 보내진 인원만 만 여 명<sup>26)</sup>, 김학순의 증언 이후 수백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증언했고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 사이 위안부(comfort women)를 칭하는 용어는 처녀 공출, 정신대 동원, 일본군 성노예(enforced sex slaves) 등으로 바뀌어왔으나 핵심은 이들이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어 삶이 망가졌다는 것이다.<sup>27)</sup> 위안부 ‘할머니’들의 과거사를 소녀기로 되돌려 고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때로부터 20여 년이 지나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은 할머니들이 살해당한 소녀기를 조용히 웅변하고 있다. 소녀상은 응시하는 주체와 응시당하는 객체가 뒤엎히는 탈식민의 텍스트이다. 소녀상은 누구를 보고 있으며 소녀상을 보는 이는 누구일까. 잘 살펴보면 소녀의 나이는 많아도 15세 정도, 꽤 어린 나이이다. 하지만 위안부 증언집을 종합했을 때 중군위안부로 동원된 처녀들의 평균 나이는 17세 가량이고 그 중에는 12세 소녀도 있었다. 당시 끌려간 위안부 66명 중에 17세 미만 소녀의 비율이 18%니 적은 숫자가 아니다.<sup>28)</sup> 그러니 ‘처녀’가 아닌 위안부 ‘소녀’상은



△ 위안부 소녀상

26) 吉見義明, 『일본군 군대위안부』, 이규태 역, 소화, 1998, 43쪽.

27) 위안부보다 성노예가 정확한 표현인 데 동의하지만 이 글에서는 식민지 당시의 용어에 스민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위안부를 사용한다.

2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산하 연구회에서 1993년부터 낸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5』을 참고했다. 증언자 총 66명 가운데 약 80%는 17~18세에 끌려갔고 18%에 해당하는 28명이 17세 미만 동원자들이다. 나머지는 19세가 넘어 끌려갔다.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었던 불우 소녀들에 대한 민족적 참회와 제국에 대한 반발을 연행 이전의 상태로 시각화하고 있다. 허나 역설적으로 소녀의 외양은 여학생을 환기시키는 특정한 소녀기를 재현하고 있기도 하다.

소녀는 치마저고리에 단발을 하고 일본 대사관 앞에 앉아 있다. 무언가를 공상하듯 순진하게 미소 짓는 표정. 참혹한 범죄를 고발하기는커녕 평화롭기만 한 표정은 일견 근대의 문인들이 꿈꾸었던 ‘미지의 소녀’-아름답고 쾌활하며 초롱한 눈빛을 한-를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계급이나 학벌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아름답게 빛나는 생물학적 연금술의 시기, 소녀상은 바로 그 순간을 붙잡아낸다.

그러나 소녀상에서 눈을 떼 이 소녀들의 과거를 보면 앞에서 언급한 불우 소녀들의 이력과 맞춘 듯 일치하는 패턴을 볼 수 있다. 먼저, 위안부로 연행된 소녀들은 가난한 시골 출신에 교육 정도가 높지 않았다.<sup>29)</sup> 둘째, 편부모 가정에서 가출한 소녀들이 많았다. 셋째, 이들 중 다수가 공장에서 일한다는 말에 속아 팔려갔다. 넷째, 취업 사기에 관여한 조선인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언들은 위안부를 불우 소녀들의 소녀기의 끝, 다시 말해 1930년대 소녀 공출 전후사에 불우 소녀를 위치시키는 역사적 관점을 요청한다. 이제 증언집에서 확인되는 소녀들의 행로를 앞에서 다룬 소녀들에 비추어 이들이 왜 오랫동안 침묵하며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데 소극적이었는지 알아보자.

주지하듯 위안부 연행은 취업 사기, 매매, 유괴, 납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거기에는 조선인의 중개가 있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도 그 뿌리가 소녀 유괴 사건에 닿아 있다. 다음은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에서 펴 낸 증언집 1~5권 중 17세 미만에 끌려간 사례들이다.

29) 정진성, 『군위안부의 실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한울, 1993, 17쪽.

&lt;위안부 증언 자료집 17세 이하 소녀 연행 일람표&gt;

연번	이름	당시 나이	연행 배경	연행 전 특기 사항
1	이옥분	12	길거리에서 납치	납치시 조선인이 속임
2	김은진	12	정신대 동원	정신대에서 위안부로 차출
3	윤순만	13	고모와 함께 연행	15세까지 여공 노릇 후 위안부 차출
4	심달연	13	고향에서 납치	빈곤 가정
5	윤애자	13	취업 사기	빈곤 가정, 자매가 함께 연행
6	황순이	13	취업 사기	모친 재혼, 빈곤 가정
7	강무자	14	집에서 강제 연행	처녀 공출을 피해 피신 중 발각
8	최정례	14	공장 취직 사기	어려서부터 남의집살이
9	박순이	14	정신대 동원	일본인 담임 소개
10	최갑순	15	집에서 사기 연행	소작농, 빈곤 가정
11	이상옥	15	공장 취직 사기	가부장의 교육 반대에 반발하여 가출, 경성 고모집에서 생활하던 중 직업소개소에서 수양딸 노릇
12	진경평	15	고향에서 강제 연행	편모, 빈곤 가정
13	김복동	15	정신대 차출	
14	김분선	15	공장 취직 사기	빈곤 가정
15	하복향	15	부친이 유곽에 매매	빈곤 가정, 어려서 남의집살이
16	최화선	15	취업 사기	부잣집 딸 대신 방직공장으로 끌려간 후 위안부가 됨
17	하영이	15	귀국 사기	일본에서 식모살이 중 귀국시켜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끌려감
18	김유감	15	정신대 동원	소학교 졸업
19	김창연	16	위안부로 팔림	계부가 유모로 팜
20	김영자	16	집에서 강제 연행	여공 출신
21	오오목	16	방직 공장 취직 사기	빈곤 가정
22	이용수	16	취업 사기	이웃의 친구 어머니가 알선
23	문옥주	16	길거리에서 납치	일본에서 6개월 간 식모살이, 조선에서 2개월 공원 생활
24	이용녀	16	취업 사기	8세부터 남의집살이
25	윤두리	16	길거리 납치	군복 공장 여공 생활
26	박두리	16	공장 취직 사기	
27	김춘자	16		14세부터 남의집살이, 여공 생활 중 손가락 절단
28	양정순	16	사탕수수 공장 공원 모집 사기	



먼저, 이들은 거의 빈곤한 농촌 출신이며, 공장 취직을 미끼로 끌려간 이들이 다수다. 또 이들이 여성 직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여공이 되려했다는 것은 그보다 고급인 서비스업 등에 종사할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중에는 14세에 과자 공장에서 일했던 소녀<sup>30)</sup>도 있지만 대개는 15세 전후에 일본에 있는 방직 공장에 취직시켜준다는 말에 넘어가 배를 탔다. 공장 노동의 실태를 몰랐거나 알았다더라도 직장 소녀가 된다는 데 미혹되었던 것이다. 공장 취직에 부모가 동의한 케이스가 이에 속한다.

가정 환경이 나빴던 소녀들은 더 상황이 좋지 않았다. 아주 어려서 수양딸로 보내진 경우는 집이 빈곤하여 기생 수업을 받다가 위안부로 끌려갔거나, 여성교육에 부정적인 가부장과 마찰이 있었다. 가부장과 다투고 가출했다가 연행된 케이스도 적지 않다. 양친 중 한쪽이 계모/계부거나 아버지, 오빠가 엄격한 가부장일 때, 소녀들은 충동적으로 집을 나왔고 그렇게 집을 나온 소녀는 18세에 만주로 끌려가게 된다.

나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내가 아홉 살 때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쌀 한 말을 팔아 보통학교에 넣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시나는 공부하면 여우가 된다”고 입학한 지 5일 만에 학교를 찾아와 교실에서 나를 끌어내고 책을 모두 태워 버렸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 일로 나는 아버지에게 맞기도 많이 맞았고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 큰집에 가 있었다. (...) 진양군의 우리 마을에는 일본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50대 정도의 아저씨가 살았다. 어느날 그 아저씨가 나에게 말하기를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곳으로 보내 주겠다고 했다. 나는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공부시켜 준다는 말에 솔깃하여 승낙을 했다. 그러나 부모에게 그 사실을 말하면 호되게 매를 맞을 것 같아 숨졌다.<sup>31)</sup>

30) 오오목, 『방직공장에 간다더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 편, 앞의 책 1권, 87쪽.

31) 문필기, 『하도 공부가 하고 싶어서』, 위의 책, 110쪽.

기억의 불확실성을 감안해도 이미 앞에서 가부장의 무지가 고보에 다니는 딸에게 기생 노릇을 강제하는 사례를 보았으니 이러한 경우도 있었겠거니와, 이에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모 앞에서 끌려간 소녀들이다.<sup>32)</sup> 군국주의의 광기는 그 부모가 처녀 공출을 눈치 채고 숨긴 딸을 찾아내 끌고 갈 정도였는데, 거기에는 어김없이 ‘악중국인’같은 조선인 중개인들이 있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근대 일본의 소녀 교육은 현모양처를 양성하려는 국민 국가 만들기 기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특히 30년대가 되면 애국 소녀-현모양처-군국의 어머니로 이어지는 여성상이 파시즘 체제에서 한 전형으로 굳어져 조선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었다. 그러나 피식민지의 초등 교육에서 배제된 다수 민중이었던 조선 소녀들에게는 이러한 포장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들의 생(生) 육체는 언어적 포장조차 필요 없는 물건, 다시 말해 인격 없는 ‘뭉툰이’로 취급되었다. 연행에 개입했던 조선인들에게 이들은 ‘동포’가 아니라 항의하고 변론할 목소리를 갖지 못한 비인간이었던 것이다. 이 소녀들은 1910년대부터 조선인 중개인들의 눈에 띈 그 소녀들과 다르지 않다. 즉 태평양 전쟁의 위안부는 고국에서부터 이미 변경에 산포한 하찮은 섹슈얼리티로만 인식되고 있었던 것. 이에 비하면 당대의 자유연애론이나 신여성의 정조론은 오히려 고담준론처럼 느껴진다. 그러니 근대 조선에는 소녀가 없다는 단정은 이렇게 말해져야 할 것이다; 근대 조선에는 여학생이 아니라 불우한 소녀들이 도처에 깔렸기에 국민 국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소녀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넓지 않았다. 문제는 창조된 소녀상이 아니라 흔해서 어떻게든 해볼 수 없는 실재하는 소녀들이었다. 카프 작가들은 이 소녀들에게 ‘혁명 처녀’라는 사상적 아우라를 부여했지만 정조를 대가로 치른 아우라에 열광하는 대중들은 많지 않았다. 정작 대중

32) 소녀들이 납치된 기막힌 사례로는 길거리 강제 납치 외에도 부모 앞에서 끌려간 케이스가 있다. 가난한 시골의 부모들은 눈앞에서 딸이 끌려가도 속수무책이었다. 김은례, 『고향 잃고 이름 잃고 떠돌이 인생 5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앞의 책 3권, 124~125쪽 참조.

들이 열광한 소녀상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신비하고 아름다운 소녀, 돈, 계급, 피식민지인이라는 심급들을 매혹적인 모더니티로 의인화하는 여학생이었다. 1930년대 후반의 장편 소설은 가난하고 총명한 청년과 부유하고 도도한 여학생의 로맨스를 통해 이를 적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로맨스는 실재를 덮는 환영은 아닐까. 이 질문은 물론 여학생과에 속하는 신비한 소녀들의 실존 여부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한 소녀상은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형상화되어 우리 문학사에서 ‘신비 소녀’라는 계보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우리 앞에 놓인 위안부 소녀상이라는 이 기묘한 조어는 30년대 신문 소설에 출현하는 매혹적인 여학생들이나 덧없이 아름다운 『소나기』의 “잔망스러운” 소녀가 아니라 일본 당국이 전몰기념비로 세운 ‘백합소녀의 탑’(ひめゆり塔)을 연상시킨다. 미군의 폭격에 사망한 오키나와의 여학생들을 기려 만들었다는 이 탑은 전후 일본이 전범국의 책임을 피해 스스로를 피해자화한 상징물이기도 하다. 국가는 순결한 여학생들의 집단적 죽음을 전시관과 조형물, 거기에 수장된 아픈 기억으로 대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죽음을 명한 위치에서 죽음을 애도하는 위치로 내려온다. 허나 이러한 비주체화는 기껏해야 ‘전쟁은 비극’이라는 명제로 전범의 책임을 편리하게 망각할 뿐, 강제로 끌려간 타국 소녀들의 처지를 이에 비할 수 없다.

1992년 최초의 증언은 30년대 당시에는 낼 수 없었던 목소리, 식민지의 서발턴이었던 소녀가 재앙을 겪고 돌아와 비로소 낸 ‘목소리’였다. 현재 그 목소리에 답해야 할 악조선인들은 사망했으나 식민 종주국은 여전히 건재하다. 하지만 소녀들의 목소리는 거기에 가닿지 않는다. 노인이 된 소녀의 언어는 ‘어떤 기억’<sup>33)</sup> 앞에서 머뭇거리고, 감정에 겨워 논리적이지 못하다. 늙은 소녀의 입을 막는 기억은 이들이 위안소에서 목격하고 고백하기 쉽지 않은 기억들인데, 여기에는 자신 뿐 아니라 그곳에서 죽은

33) 위안부 할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밝히기 꺼리는 기억에는 위안부 생활에 대한 실상 외, 그곳에서 목격했던 위안부들의 죽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다른 소녀들의 기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증언의 결과로 탄생한 소녀상은 1930년대 후반부터 45년 종전까지 아직 소녀였던 그들의 동료들-전장의 위안소에서 비인간 상태를 겪고 죽은 더 많은 소녀들의 소녀기를 기억하려는 생존자의 기억 투쟁이다. 인간이 비인간이 되는 장소는 아우슈비츠 외에도 태평양의 전장에 산재했다. 노인이 된 위안부들은 그곳을 증언하면서 이를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으로 표출했다. 같은 시기 유럽의 유대인 수용소를 겪고 살아남은 프리모 레비는 “인간은 인간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는 인간이다”는 말로 아우슈비츠에서 목도한 ‘이슬람교도’를 기억했다. 조르조 아감벤은 레비의 말을 증언할 수 없는 자들(이슬람교도)보다 못한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sup>34)</sup> 고백하는 증언자의 책무로 독해한 바 있다. 아감벤의 해석은 소녀상을 응시하는 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탈식민의 텍스트로서 위안부 소녀상의 역할은 양의적이다. 분명 소녀상은 ‘할머니’들의 살해된 소녀기를 지시하고 있지만, 그 평화로운 외양은 역설적으로 피식민지 불우 소녀가 겪은 참혹한 역사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응시하게 해준다. 따라서 왜곡되지 않게 소녀상을 응시하려면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이들의 증언 내용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고 앞에서 살펴본 신문 자료는 바로 이 점을 뒷받침해주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대 소설의 한 대목에서 소녀 유괴 사건을 읽는 것으로 위안부 연행의 실태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 5. 위안부 연행의 문학적 재구성

식민지를 겪은 작가로서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고백한 이는 김정환이다. 『오키나와에서 온 편지』(1977)에서 그는 잇힐세라 서신의 형태로 위

34) Giorgio Agamben,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정문영 역, 새물결, 2012 참고.

안부의 존재를 언급하며 국가적 반성을 촉구했다. 그런데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1940년대 초에도 이 문제를 다룬 작품이 있다. 이기영의 『왜가리』(1941)가 그것이다. 1930년대 후반부터 이기영은 만주 소재 장편에 주력했는데, 『왜가리』에서는 이와 사뭇 다른 필치로 1940년대 초 조선 농촌의 단면을 그린다. 소설의 주요 소재는 당시 만연했던 소녀 유괴 사건이다.

가장들이 만주로 일거리를 찾아 외유한 틈을 타 왜가리촌에 외지 사내가 나타난다. 그는 마을의 작부(호박 갈보)와 공모하여 여공 모집을 미끼로 소녀들을 꺾어낸다. 이 일련의 과정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세밀하게 기술되고 있다. 특히 돋보이는 부분은 외지인의 사주로 소녀를 꺾어내는 악조선인 작부의 행동이다. 소설 전체에서 ‘조선옷’을 입은 실루엣으로만 존재하는 외지인<sup>35)</sup>과 달리 작부는 소녀들의 어머니를 상대로 능란하게 사기를 치고 외지인에게 이중으로 돈을 받아 챙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작부의 이러한 욕망은 평범하게 그려져 있다. 즉 식민지 조선에 흔했던, 물신에 사로잡혀 윤리적 성찰력이 결여된 인간형, 그가 작부이다. 한편 그의 곁에는 바보 같고 무능한 남편이 있다. 그는 작부의 음모가 들 통나자 ‘나는 죄가 없다’고 강변하는 등 전체적으로 ‘악의 평범성’을 환기시킨다.

여기서 이들, 악하고 무지한 조선인의 행위도 행위지만 이 작품의 핵심은 작부의 꾀에 빠져 사내를 따라나섰다가 도시에 갇힌 소녀들을 대표하여 보비가 집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보비는 감금된 장소에서 ‘어렵게’ 편지를 보내는데, 사실 구성상으로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편지는 서술자에 의해 기어이 부모에게 당도함으로써 이 소설의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보비의 편지는 당시 여공 모집의 진실을 간명하게 묘사하

35) 이기영, 『왜가리』, 『문장』 16(제2권 4호), 문장사, 1941.4, 60쪽.

외지인이 조선옷을 입은 이유는 “양복을 입고 촌주막에서 며칠씩 묵으면 남에게 수상하게 뵈일까 무서워서”인데 이는 물론 작전이며 “이집 안주인(호박갈보-인용자)과는 아무것도 안되면서 친척간이라고 서로 짝” 것이다.

고 있다.

어머니! 모시 공장으로 간다든 말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어요. 저희는 그날 서울로 바로와서 지금까지 가치 있습니다. 그놈의말을 드러보면, 우리를 한명에 오십원씩 사왔다구요—어머니가 도장찍은것까지 내보여서다 보았습니다. 어머니 저의들은 그래서 오십원에 팔린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사람을 속여서사가기 이렇게 가두는법이 어디있느냐 물었더니, 법은 주먹이라구 얼레며며, 너희 부모의, 도장으로 이렇게 증서까지받은바에야 다른법이 어디있느냐구, 저희가 다러나면, 나만 손해가 아니냐고, 그래매를 맞았습니다. 우리들은 색주가집으로 다시 하나씩 팔어 넘기는 모양인데, 벌써 흥례와 옥분이와 오남이는 어디로 팔아 버렸습니다. 지금은 저와 길순이만 단들이 남었는데, 우리들도 미구에 팔려갈것 같습니다. 아직 안팔려가고 있는 것은, 금을 다투느라고 그런가봅니다. (...) 모든일을 생각하면 그저 아득할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저의 팔자라면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것도 없을줄 압니다.....어머니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하략)<sup>36)</sup>

편지 덕에 소녀들의 모친은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외지인은 이미 달아난 후이다. 그 뒤 사건은 급속하게 전개되어 떠났던 가장들이 돌아오고 작부는 경찰서에 붙들려간다. 하지만 마을의 지주가 바뀌는 소동이 일면서 납치당한 딸들의 집은 오히려 소작권만 떼이고 작부는 이상하게도 “관대한 처분을 받고 무사히” 나온다. 보비를 마음에 품었던 성준은 단숨에 일어난 이 모든 사태가 기막힐 뿐이다.

『왜가리』는 전반부의 소녀 유괴 사건과 후반부의 소작권 다툼, 빈농들의 일자리 문제 등 굶직한 사건들이 듣성하게 얽혀 있는 중편이다. 보비 등을 피어내는 전반부와 다르게 후반부로 갈수록 구성도 성글고 힘이

36) 이기영, 앞의 글, 63~64쪽.

떨어진다. 그런 까닭에 식민지 말기의 흥흥한 세상을 고발한 범작으로도 보이지만 그림에도 전반부에서 실루엣으로만 등장하는 외지인이라든지 그에 협력하는 호박 갈보, 보비의 편지는 소녀 유괴 사건을 모티프로 1930년대 후반 공공연하게 자행된 소녀 공출의 일반적 행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위안부 차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던 당대 현실에서 이 정도라면 사실상 위안부 강제 연행을 기록한 기록물로 봐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보비의 편지나 여러 개의 사건을 엮은 구성상 결함은 논픽션을 픽션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보인다.

물론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농촌 문제에 민감했던 이기영의 촉수에 잡힌 ‘우연의 일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우연’이 이토록 흡사하게 역사적 진실에 근접해 있다면 이미 그것이 당대에 ‘만연한 사건’이었으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뜻일 것이다. 이 과정을 악조선인들과 공권력의 합작으로 포착하고 고발한 작품이 「왜가리」이다.

## 참고문헌

### 1. 기초 자료

#### (1) 소설

안승현 편, 『일제강점기 한국 노동소설 전집 1~3』, 보고사, 1995.

이기영, 「왜가리」, 『문장』 16(제2권 4호), 문장사, 1941.4.

채만식, 「병이 낫거든」, 『채만식 전집 8』, 창작과비평사, 1989.

#### (2) 신문, 잡지 자료

「江環論山두곳에서 兩少女行方不明」, 『조선중앙일보』, 1933.7.26, 4면.

「단발랑 이야기 1~5」, 『매일신보』, 1924.2.2~1924.2.6.

「조타고찾아갓든공장 虐待에 二少女脫出」, 『동아일보』, 1939.8.4, 7면.

落照生, 『少女』, 『홍영』 1권 2호, 공영잡지사, 1922.8.

『少女賣買 中國人逮捕』, 『동아일보』, 1924.10.4, 2면.

『少女哀話 1~7』, 『동아일보』, 1921.10.02~1921.10.8, 3면.

이헌구, 『소녀 차장』, 『사해공론』 2권 5호, 사해공론사, 1936.5.

『朝鮮少女들을誘引 強制로賣春虐待』, 『조선일보』, 1935.10.30, 2면.

『줍쌀 단 세 포대에 팔리어 온 소녀』, 『동아일보』, 1928.2.5, 5면.

『中國阿片窟에 監禁된 朝鮮少女救出記』, 『조광』 2권 1호, 조선일보사출판부, 1936.1.

『職場 少女들의 抗議書』, 『여성』 3권 7호,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7.

『창기 되기 싫다고 경찰서에 호소』, 『중외일보』, 1930.1.29.

### (3) 증언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2』, 한울, 1993.

한국정신대 연구소·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한울, 199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풀빛, 2011.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한국정신대연구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 풀빛, 2001.

### (4) 기타 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시대일보』, 『매일신보』

## 2. 논문 및 단행본

### (1) 논문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한국근대문학연구』 18, 한



국근대문학회, 2008.10, 203~234쪽.

서지영, 『여공의 눈으로 본 식민지 도시 풍경』, 『역사문제연구』 22, 역사문제연구소, 2009.10, 7~31쪽.

윤정란, 『식민지시대 제사공장 여공들의 근대적인 자아의식 성장과 노동쟁의의 변화과정』, 『담론201』9권 2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6.8, 37~76쪽.

윤지현, 『1920~30년대 서비스직 여성의 노동실태와 사회적 위상』, 『여성과역사』 10, 한국여성사학회, 2009.6, 93~139쪽.

## (2) 단행본

이경민,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진아카이브연구소, 2005, 73쪽.

정진성, 『군위안부의 실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1』, 한울, 1993, 17쪽.

中野敏男·김부자 편저, 『역사와 책임』, 이애숙·오미정 공역, 선인, 2008.

吉見義明, 『일본군 군대위안부』, 이규태 역, 소화, 1998.

Primo Levi, 『이것이 인간인가』, 이현경 역, 돌베개, 2012.

Giorgio Agamben,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정문영 역, 새물결, 2012.

渡部周子, 『<少女>像の誕生』, 新泉社, 2007.

今田繪里香, 『『少女』의 社會史』, 剗草書房, 2007.

## Abstract

### Runaway and crossing the border of Disadvantaged Girls

-History before and after 'Forced Supply of Young Girls' in the 1930s-

Kim, Jy-hyeon

In Korean modern literature history, girls are a symbol overshadowed by boys while making a semantic pair with boys. Studies analyzing sociological meanings of symbols of girls as well as works of art that can be categorized as 'girls' novels' have been rare in Korea, which is different from Japan, and this is largely attributable to the concept that girls refer to female students. However, in fact, just a quick glance at modern texts will enable you to meet countless 'disadvantaged girls' who run away from their homes and start crossing the border. This paper escaped from the category where girls are equated with female students, focused on disadvantaged girls in the modern Chosun in the 1920s from the perspective of classes, and identified their traces based on history before and after 'forced supply of girls' in the late 1930s.

Modern disadvantaged girls are represented in specific ways through the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magazines as well as labor-related novels by artists from KAPF referring to an association of Korean proletariat artists. Disadvantaged girls in labor-related novels where female factory workers appear work as breadwinners of poor families, lose their chastity, and develop into 'girls of revolution'. This type of growth is characteristic of artists from KAPF but it is only an ideal where an artist's concept is

projected. In reality, these girls tend to suffer from diseases and illnesses, leading to faint mental and physical health. Hence, in order to see the reality more realistically, abductions of girls in the 1930s shall be checked with newspapers and magazines. From the 1920s, the three largest national newspapers often dealt with abductions of girls, which sometimes developed into social scandals involving anti-Chinese nationalistic feelings and drew attention of their readers. However, the disadvantaged girls, thus represented, were objectified as those devoid of human rights by the subjects of reproduction except for cases where girls, once females students, became gisaeng or entertainment girls. This erases uniqueness or individual characteristics as human beings. The so-called 'Aehwa the Girl' or 'Aehwa the Gisaeng' pertain to this category.

'Forced supply of girls' in the 1930s is the worst case where girls were forcefully mobilized as comfort women and then slaughtered. The historical status of comfort women that cannot be sufficiently identified based on anti-colonialism or nationalism needs a historical perspective asking who they were including (un)certainities of testimonies. The traces of disadvantaged girls explored in this study is the answer.

Key words : Disadvantaged girl of modern times, Forced supply of girls, Novels about/for female factory workers, Abduction of girls, Aehwa the gisaeng(a sad story of Gisaeng), Girls' sexuality, Statue of a comfort women, *Heron* by Lee Gi-young